

일반논문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Making identity of multicultural space and discursive discourse: the case of
two small public libraries, Damunhwa and Modoo in Wondok-dong,
Danwan-gu, Kyounggi-do, South Korea

김윤영*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내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공간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담론들을 분석한 것이다. 본 글은 저자가 두 도서관의 실제 운영자로 위치해 있으면서 인류학적인 방법인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자기기술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두 도서관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은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며, 이주민을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인식하고 도서관을 하나의 복지시설로 간주한다. 그래서 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이주민 대상의 특수성을 지니며 공공도서관과 복지기관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형성한다. 다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전문성을 일컫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자체도 총체적 서비스가 아닌 이주민만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가복지정책 틀에 사로잡혀 사회기반시설인 다문화도서관이 복지기관으로 전락하고, 고유한 전문성의 발전이 저해되는 한국의 다문화현상을 비판한다.

주요어: 다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원곡동, 이주민, 다문화도서관서비스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안산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관장 yyoungkim@gmail.com

1. 들어가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지역거주민 총 24,423명 중 약 85%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등 국제이주민들로 구성된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2019). 2009년 안산시는 이곳을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이 다문화마을 특구 내에는 공공작은도서관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본 글은 다문화공간인 두 공공 작은도서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위치와 입장, 시선을 지닌 주체자들이 그 공간을 각각 다르게 들어가며 규정짓는 전략적인 행위들을 살피고자 한다. 국외이주민, 내국인, 행정공무원, 도서관사서 등의 주체자들이 공간과 타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해가는 장소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문화 현상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1,861,084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총인구 51,422,507명 대비 3.6%에 해당하며, 전년도 같은 시기의 수치 대비 5.5%가 증가한 것이다. 거주지역별로 경기도는 603,609명(32.4%), 서울시 413,943명(22.2%), 경상남도 116,379명(6.3%)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고,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0.3%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외국인 거주민이 82,242명에 이르는데, 이는 안산시 총인구 대비 11.2%에 해당하는 수이다. 시흥도 외국인 거주민이 49,564명으로 총인구 대비 11.1%에 다다르고 있으며, 화성, 평택, 부천 등의 도시가 외국인 거주인 수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69개에 다르다(행정안전부, 2018.11).

안산은 1970~1980년대 반월시화공단의 산업단지조성과 함께 경제성장의 기반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고도경

제성장에 따라 국내 인구의 제조업체 노동기피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체인력인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단원구 원곡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거주지역이 되었다(구분규, 2013: 14~17). 이에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민간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급기야 1999년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민의 다문화공동체인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이국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공간으로 변해갔다(오경석·정건화, 2006 참조). 더불어 2005년 원곡동 지역 내 중앙정부기관으로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신설하고 2008년에는 ‘외국인주민센터’로 명칭을 개편하여, 2009년 원곡동이라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2016년에는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이 확대·개편되었고, 2019년 현재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어 이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2019). 본 연구에서 논하는 공간 중 하나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위 기관 건물의 지하층에 자리하고 있고,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이 기관으로부터 불과 2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단원구 원곡동 내 지역주민의 독서·교육·문화 생활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2008년, 2011년에 설립되어 안산시와 한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 후 2014년 안산시는 두 공공 작은도서관을 안산 내 한 종합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총 12,611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 중 8,850권은 24개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외국 원서이다. 1일 평균 약 100여 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며 이용자들의 90%가 외국인이주민에 해당된다. 그리고 1일 평균 15~20명 정도가 책을 대출한다.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총 13,955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중 외국원서는 16개국 언어의 4,689권에 달한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40여 명에 해당된다.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중 90%가 외국인이

주민이며 1일 평균 5~10명 정도가 책을 대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두 도서관 모두 1년에 약 250건의 독서 및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들을 일정한 연령과 세대, 국적을 초월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김윤영·정은주, 2016 참조).

본 논문은 다문화 공간인 두 도서관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분석하여 한국 다문화 현상이 갖는 모순점, 불합리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지역주민인 한국인과 이주민에 의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도서관이 한편으로 관료행정 이반의 실행에서는 공간의 주고객인 이주민의 주체성이 배제된 채, ‘다문화’라는 용어가 ‘복지’의 의미로 귀결되면서 도서관 고유한 전문성의 발전이 저해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에 본 논문은 ‘복지’제도와 정책 중심으로 맞추어진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그 편협한 시각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연구로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두 도서관의 사례 채택 배경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지역의 거주민 80% 이상이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에 근거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에 의해 다문화 공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데다 도서관은 고유한 전문성을 지닌 공공의 사회기관으로서, 그 전문성과 공공성이 지역거주민의 다양한 배경과 위치의 개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위되고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의 다문화 공간이다. 이는 흔히 이주민의 지원기관으로 한정지어 다루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본 글의 전반부에는 도서관 실무자와 이용자인 거주이주민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서서히 공간의 주체자로 자리매김하고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행위들을 묘사한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상호작용과 주체적 행위는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이 갖는 고유한 전문성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는 공간으로서의 차별성을 결합시

켜 다문화도서관으로의 새로운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전문성이 외부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무시되는 모습을 후반부에 그린다. 관료행정의 틀 속에서 전반부에 그려졌던 공간 내 발휘되는 이주민들의 주체성은 무시된 채, 지원과 복지의 수혜자로서 그 소수자성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도서관은 복지기관으로 변질되어 인식된다. 결국 이주민들의 주체성에 의해 새롭게 발전 가능한 다문화도서관의 전문성이 공간을 규정짓는 시각의 편협성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공간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현장연구 방법론을 활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연구의 분석에서, 본 글은 연구자 자신의 내부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전개해 나간다. 실제로 인류학자인 연구자는 두 도서관의 관장으로 역임하며 2014년부터 근무해 왔다. 연구자 자신이 학교 밖 실천 영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논문 형식의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는 인류학 내에서는 일찌감치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적 시각이 현장연구와 자료 분석, 문화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객관적 서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관적인 글쓰기를 옹호해 왔다. 더군다나 1990년대 말부터 인류학계에서는 학문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변화를 꾀하는 연구자의 현장 내부자적 위치와 시선을 분석한 연구물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응용인류학(Applied Anthropology), 실천인류학(Action Anthropology), 참여인류학(Engaging/Engaged Anthropology), 그리고 공공인류학(public Anthropology) 등으로 학문영역을 분류한다. 이런 학문은 이론적 탐구와 현장 실천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변화를 꾀하는 인류학자의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김예겸, 2005; 이용숙, 2005; 정병호, 2017). 본 글은 연구자 자신이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의 운영책임자인 현장 내부자

이자 관찰자로서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실천의 경험을 최대한 거리두기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2. 다문화공간과 장소성

초기인문지리학자들은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추상적인 한 공간이 인간의 경험에 의해 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Tuan, 1977). Relph(1985)는 인간과 공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장소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장소의 정체성’으로 개념화했다. 본 글은 인간과 공간의 상호성에 주목하여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의 정체성과 담론을 살피려 한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문화’ 공간이다.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전 세계의 불균등한 정치경제구조에 의해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촉진되면서 발달한 초국가적 이주, 국제이주민의 유입현상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용어가 차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크게 세 가지의 함의를 지니고 사용된다(Troper, 1999; 윤인진, 2008에서 재인용). 구본규(2013: 8)는 ‘다문화주의’라는 단어를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종족적·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그 사회의 긍정적이고 구별되는 특징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이상 또는 가치체계, 그리고 문화적·종족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정책”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2000년대 말부터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

의 개념 대신 ‘다문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국제이주민 유입의 증가와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 대해 ‘공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최병두, 2009; 박배균, 2009; 김영옥, 2010; 정병호·송도영 외, 2011). 이들은 이주라는 현상이 공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과 ‘지리적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들은 공간을 사물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생산물임을 강조한 Lefebvre(1990)의 이론을 따른다. 즉 공간은 사물과 사람, 그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며 소멸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Harvey(1996)는 근대 사회의 역사적 사건과 그 현상에 대한 이론들이 공간을 무시한 채 ‘시간’을 특권화한 것을 비판하며 ‘공간적 전환(spatial turn)’, 즉 ‘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관점(김영옥, 2010: 38)’을 제시한다.

이에 최병두(2009: 637~638)는 다문화 사회를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다문화 공간’을 단순히 자본축적을 위한 초국적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이 혼재하는 공간이 아닌, 그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상호 인정을 요구하는 정치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실천되는 과정의 장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정정치의 투쟁 공간으로서 ‘아이디’ 마을이라는 실례를 제시한 김영옥(2010) 연구는 공동체 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이 변화되면서 하나의 공간에 특수한 장소성이 부여되는 모습과 인정투쟁의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다문화 공간을 소개한다.

이러한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장소성 획득의 주체적 인간 행위와 실천 그리고 그 한계에 주목한 연구물들이 여러 존재한다. 이상봉(2011)은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재일한국인이 어떻게 오사카 조선시장의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자로서 자리매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오사카의 조선시장을 재일한국인의 민족성을 드러내어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저항하는 공적 공간으로, 한국문화가 상품화되는 소비 공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차이를 지닌 다양한 사람

들이 혼종하고 공생하는 다문화 공생의 공간으로 장소성을 만들어갔다. 박세훈·이영아(2010) 연구는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 밀집지역이 조선족 유입으로 상업적 서비스 거점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선족 내부의 사회적 연대나 결속 그리고 지역 내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관계 형성 등의 미흡으로, 또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해 지역의 활성화가 저해되었음을 분석했다. 위의 연구물들은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주체적 행위에 의해 형성된 공간의 장소성과 그 한계를 다루고 있다면, 본 논문은 도서관이라는 특정 공간에 대해 다양한 위치와 입장, 시선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정체성과 그 과정 속에서 규정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불합리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Aabø and Audunson(2012: 143)에 따르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사적 영역이 그물망처럼 짜여 있는 공적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서로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들이 한곳에 모이는 공적인 공간이자 그들 개개인의 고유 활동이 일상에서 수행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개념화한다. 더 나아가 박정숙(2013: 35)은 ‘작은도서관’을 시설보다는 운영-사람 중심의 실천 운동적 성격이 강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두 정의를 종합하면, 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 존중받는 공적인 장으로서, 개인의 가치와 역량이 개발되고 발현되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운동이 드러나는 문화공간이다.

도서관계에서는 하나의 다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갖는 전문성을 ‘다문화도서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논의해 왔다. 2008년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다문화사회: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에서 제시된 개념에 따르면, 민족과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어야 하며, 원주민과 이주민, 복합문화적인 배경의 사람들, 다국적자, 망명신청자, 난민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거주자, 이주노동자, 국가의 소수집단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심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미정·이미정, 2013: 7; 김윤영·정은주, 2016: 562에서 재인용).

이어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다문화서비스 운영과 모형을 제시하며,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김영미·조인숙, 2011; 조용완, 2007; 조용완·이수상, 2011; 조용완·이은주, 2010; 이미정·이미정, 2013; 양수연·차미경, 2011). 특히 조용완·이은주(2010: 25) 연구에서는 도서관다문화서비스를 일곱 가지 항목, 즉 장서·콘텐츠, 사서·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정보이용 시설·장비, 편의시설, 홍보 및 대외협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로 한국사회의 도서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도서관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실제 현장의 적용실태와 그 한계를 현장연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가져오는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3. 만들어가는 다문화 공간, 원곡동의 두 작은도서관

두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공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문화 공간’이다. 먼저 본 절에서는 이용자인 거주이주민들이 도서관 내에서 행하는 일상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묘사하여 어떻게 이 공간이 이들에 의해 다문화도서관이라는 전문기관으로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본다.

1) 사적과 공적 영역의 공존: 규범과 가치의 충돌

도서관은 사적과 공적 영역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타자의 주체성에 대한 존중을 강요받는 공간

이다(Aabø and Audunson, 2012: 143). 그런데 국제 이주민들은 국가 정부의 특별 복지혜택 범주 내에 있는 불편한 수혜자로서 필요에 따라 강요 받거나 동원되기도 하는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때론 개인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고유의 의지와 주체적인 힘을 상실해 왔다. 도서관은 이들이 스스로 주어진 일상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주체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 ‘복지’와 ‘지원’이라는 이름의 제도 속에서 묻혔던 이주민 개인의 의지와 잠재적인 역량을 회복시키는 장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주민,’ ‘다문화’의 기호가 갖는 주류 사회의 해석들, 차별과 배제 속에 수혜자로서 소수자성이 강조되기도하는 이주민들의 인정투쟁과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는 장이다(김영옥, 2010).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도서관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주민들 중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생애 처음으로 이용해 본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이주민들은 서점과 도서관을 혼동하여 책을 구입하려 했고, 공공기관임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불해야 할 이용 금액을 묻기도 했다. 설마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는 공간일 리가 없다는 듯이 의심어린 눈으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더러 있었다.

이주민들은 먼저 도서관 실무자로부터 이용수칙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해했다. 전문사서는 이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회원가입, 도서대출 및 반납의 기본원칙뿐 아니라 최소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내, 예를 들면 ‘도서관 내 정숙하기,’ ‘핸드폰 진동으로 하기,’ ‘통화는 도서관 밖에서 하기’ 등의 기본수칙을 설명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곳은 사적과 공적 영역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설명으로 부족하여 도서관 한쪽 벽에 이용방법과 수칙에 대한 안내문을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하여 공지해 놓았다. 이것은 도서관이라는 공간 이해의 첫 입문수업이자 도서관 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도입단계에 해당했다.

도서관 실무자는 이주민들이 이 공간에 대해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하도록 의도적으로 공간의 새로운 이용규칙을 만드는 전략적 실천을 감행하기도 했다.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즉 연령이 낮은 유아 및 아동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남편은 소위 3D업종이라 불리는 열악한 환경의 제조업 공장에서 야간근무까지 자원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지만, 점점 커가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내는 마냥 집에서 육아에 전념만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경기 불황과 제조업 분야의 하향세로 인한 남편의 실직은 더욱더 아내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웠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강행되는 맞벌이의 노동 속에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맡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선택했다. 도서관은 독서·교육·문화 공간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무비용의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은 도서관을 탁아소나 지역아동센터로 혼동했다. 이주민들은 7살 혹은 그보다 어린 자녀에게 김밥 한 줄 혹은 빵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고 도서관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녀들은 도서관에서 보호자의 관리 없이 방치되었다. 이주민 중에 몇몇은 도서관 사서에게 몇 시까지 올 테니 자녀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사서인 도서관 실무자는 이러한 상황을 난감해하기 시작했다. 전문 사서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빠듯한데 학생들의 보호자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니 그 심리적 중압감도 컸다.

어디까지가 사서의 업무일까요? 일일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 없이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죠?

-2015.2.11. 실무회의에서

사서 선생님은 전문 업무의 범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또 이용

자 안전문제 그리고 책임문제가 고려되면서 사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실무자는 이주민들이 탁아소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무자는 두 가지, 즉 “음식 반입 금지”와 “7세 미만의 아이는 보호자가 동반해 줄 것”의 이용규칙을 정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공지하였다.

그런데 새로 만든 이용규칙은 운영자가 추구하는 공간의 가치와 충돌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친밀성이 높은 생활밀착형의 지역사회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성격과 저소득층이자 사회 소수집단인 이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두 이용규칙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발휘되는 의미와 그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마찰도 발생했다. 자녀들과 함께 온 몇몇 보호자들은 점심시간에 도서관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몇몇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듯 도서관을 바로 떠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긴장과 마찰 속에서 실무자는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문 앞에 작은 벤치를 마련하여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의 이용규칙은 그 공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나 그 규칙이 때로는 공간의 의미, 가치와 충돌하면서 이용자와 실무자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켰다.

2) 관계망 속에 만들어지는 주인의식: ‘나의 공간’인 도서관

김영옥(2010)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다 마을을 단순히 찾아와 참여하는 방문의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역할을 나누고 성장시키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여러 프로그램과 공동체 모임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통한 타인과 관계 맺기와 인정 투쟁을 실천해 나갔다. 이처럼 도서관도 이주민들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스스로 주체성과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장소가 되어갔다. 그 예로 여기서 도서관의 한 조선족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문화작은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손에 꼽히는 도서관 주 이용자들 중 한 분인 그는 신문과 책을 읽으며 매일의 일상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병원에서 만성폐질환자로 몇 개월 못 사신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우연히 도서관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늘 하루 절반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도서관 덕분에 이렇게 몇 년째 죽지 않고 살고 있다며 감사함을 종종 표현했다.

2016년 5월, 그는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점심시간 때 1시간을 할애하여 도서관에 있는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간단한 책을 같이 읽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매일의 일상을 정해놓은 한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의 소통 없이 지내는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서 건너온 20, 30대 외국인 근로자에서부터 40대 조선족과 한족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를 포함한 60대 조선족 할아버지 등 남녀, 연령, 국적이 다양한 8명이 모였다. 먼저 작가의 삶 속에 겪었던 고난과 역경의 경험이 소개된 짧은 에세이를 함께 읽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기뻐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펐거나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각각 20분씩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 조선족 할아버지의 행동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매일 보는 타인에게 눈인사도 없이 지내왔던 몇 년간의 그는 다른 도서관 이용자와 자신의 삶을 나누는 후부터, 다른 이용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간혹 도서관 밖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찻잔들과 찻잔 받침, 작은 주전자,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차를 도서관에 기증하시겠다고 하시며 가지고 와서는 손수 차를 우려내어 독서에 몰두하는 다른 이용자

들에게 대접하며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의 수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문화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30분 정도 걸었다 쉬었다 하면서 도서관에 오지만요. 저는 현재 아들가족, 저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막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고, 부인은 야간 식당일을 하기에 낮에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문화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으며 끊임없이 배우다 오후 3시쯤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부인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합니다. 이런 삶은 매일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아픈 저에게 큰 삶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의 중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3년 선배도 만나는 것을 보면 다문화도서관은 제가 사는 안산에서의 새로운 사랑방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략) 저에겐 또 다른 집과 같은 다문화도서관으로 놀러 오신다면 제2의 집주인으로서 여러분을 환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11. 제1회 다문화 및 어르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도서관은 그에게 제2의 집이 되었고, 그는 도서관의 또 다른 주인이 되었다. 그의 태도는 다른 주요 이용자들에게 전염되어 금세 퍼져나갔다. 사서가 회의 혹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를 비롯한 도서관 이용자들은 대뜸 “도서관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요”라고 건네었다. 이렇게 이주민들은 사서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이 짙은 공간을 자신들이 주인인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작은도서관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주민이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 갔다. 이렇게 이용자들은 일상 속에서 타인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을 ‘나’와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여기서 도서관의 실무자가 저널에 실은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80개의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부담 없이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말고, 이용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책 프로그램을 만들고픈 간절한 바람이 ‘지구인 금요책 반상회’(프로그램)를 실천에 옮기면서 실현되었다. (중략) 책반상회 때 무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 매일 나오는 분들이고, 책을 많이 읽는 애독자들이 ... 같은 시간(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금요일)에 도서관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중략)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먹고, 읽은 책의 소감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이웃이 되었다.

-정은주, 2018.01+02 《학교도서관 저널》 80호, 102~107쪽

이러한 이용자의 주인의식 발현과 집단 공동체 형성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동아리 모임의 활동에서 더 잘 나타났다. 세계명예사서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도서관 이용자 이주민들은 외국 원서 선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모든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번역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한국 실무자들의 언어장벽 문제를 해결했다. 또 이들은 부모교육이나 미술 동화 구연 관련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도서관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몇몇은 자수, 그림, 동영상 등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적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여 얻은 개인 결과물들을 전시하거나 홍보했다. 개인과 공간, 공간 내 개인 간의 상호

작용 형성을 통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자신’과 ‘우리’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형성해 나갔다. 또한 이들은 다문화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보이지 않는 경계: 이주민과 선주민의 벽

문턱이 낮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마을 내에 위치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작은 공간이 이용자들에게 주는 아늑하고 편안함이 있다. 이주민들을 위해 모국어로 쓰여진 홍보문구를 붙여놓고, 모국어의 원서들을 비치하고, 통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친절히 안내한다. 이는 도서관의 기본적 다문화서비스 요건이며,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공간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문턱이 낮지 않았다. 두 도서관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워낙 거주민 중 한국인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다문화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철저히 공간이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만’을 위한 장소로 인식시켰다. 그래서 이주민에게는 문턱이 낮은 도서관이 되었지만, 일반 한국 주민에게는 문턱이 높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도서관 이용자 중 어떤 일반 한국 주민들은 이 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실무자의 허락을 구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인데 도서관을 이용해도 돼요?” 혹은 “한국 사람인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해도 돼요?”라고 문의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용어의 공간이 이주민과 선주민을 분리시키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한국 거주민들이 이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그들 중 몇몇은 늘 훈계나 가르치는 태도로 이주민들을 대했다. 또 도서관 내에서 한국인 이용자들은 철저한 외부자로서 도서관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스스로 가졌다. 예를 들면 이중 언어가 가

능한 조선족 실무자를 주말 근로자로 채용했는데, 이주민이 도서관의 운영책임자로 있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는지, “실무자가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물어봐도 잘 모른다”며 민원을 넣었다. 반대로 이주민의 소수자로서 받아왔던 상처의 경험들로부터 쌓인 피해 의식으로 인해 돌출되는 행동들 때문에 한국 주민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할아버지들 4명이 큰 소리를 내서, 점잖은 태도로 조용히 해달라는 중년의 한국 남성 부탁에, 대뜸 “여기 너(한국사람)는 한 명이지만, 우리(조선족)는 4명이야!”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마찰의 순간도 발생했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 이주민과 선주민은 도서관의 문턱높이를 다르게 상정하며 이해하고, 다른 위치와 입장으로 공간과 상호작용을 맺어갔다. 도서관은 여전히 이주민과 선주민 간 소통의 한계를 지닌 공간이었다.

4. 규정되는 공간의 정체성과 다문화 담론, ‘복지’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이주민들은 공간과 타인의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문화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 즉 이용수칙안내, 원서 구입 및 비치, 각종 프로그램 실행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이주민은 주인의식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공간이자 공공의 사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간다. 그러나 다문화도서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은 공간의 외부자인 관료행정가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규정짓는 ‘복지’라는 편협한 시각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거나 왜곡된다.

- 1) 전시행정 속에 만들어지는 관광 상품 자원으로서의 도서관과 그 점유

이용자들과 실무자들의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지는 공간의 정체성은 공간 밖의 타자들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과 다르다. 박세훈·이영아(2010: 74~76)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민족적 주거지 분화현상(spatial segregation),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 그리고 상품화된 공간의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이렇게 세 가지 이론 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윤경(2013)은 외국인 밀집지역은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어떤 이미지와 장소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상품화되기도 하고 주변화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볼 때 이런 이중적인 양면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단원구 원곡동도 이주민들의 밀집거주공간으로서 외부로부터 위협하고 더러운 곳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주변화된 사회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대안적 방안과 정책이 맞물려 다문화 마을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종족성이 관광 상품화되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은 지역적 상품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도서관 운영 책임자인 연구자와 사서는 때론 자원을 파는 관광 상품화 전략의 적극적인 들러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의 모습은 여느 다른 국내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각종 다양한 언어의 간판으로 구성된 거리, 그 속을 누비는 이국적 외모를 지닌 사람들, 다국적 음식점과 거기서 풍기는 향신료 냄새, 그리고 거리에 즐비해 있는 생소한 음식 재료들은 외부인인 일반 한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이질적 풍경이다. 이를 접하기 위해, 타지인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는다. 봄, 가을이 되면 이들을 태운 중대형 견학버스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버스가 나른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은 다양하다. 각종 일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서부터, 다문화 교육, 이주민 이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 다문화정책관련 정책입안자 및 공무원 등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관심 있는 교육 및 연수대상자들이다. 이러한 풍경은 연구자가 출퇴근하

면서 매일 보는 공장 생산직 노동인력 혹은 단순 일일 인력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나르는 중형차들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타지인을 맞이하는 중간연결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들은 대개 각각 손님을 맞이하는 원곡동 지역 기관들의 실무자들이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을 관리하고 이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행정의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기관 혹은 민간단체의 실무자, 공공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연구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이주민 복지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개와 그 역할을 설명하고, 단체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안내하며 같이 찍거나 손수 카메라를 건네받아 사진을 찍어준다. 다문화지원특구 원곡동 지역의 특징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그 실적을 전한다. 기관별 우수기관 평가 수상의 경력을 플래카드로 걸어놓으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적인 견학장소가 된다. 궁극적으로 외부방문견학의 핵심요지는 지자체 혹은 방문기관이 얼마나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인식시키는 데 있다.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외부지역의 공무원과 정책 입안자들이 방문 견학 코스로 도서관을 종종 들르는데, 그들이 들어서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다문화 정책수반을 담당하는 외부 행정공무원이나 정책입안자들이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으며 도서관의 문을 들어선다. 양복 입은 사람들의 등장에 도서관 이용자인 이주민들은 낮설어하지만 하도 이러한 부류의 방문객들을 많이 맞이해 본 터라 금세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읽던 신문이나 책으로 눈길을 옮긴다. 도서관 실무자는 바로 일어서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들어서자마자 동행한 안내자인 안산시 소속의 공무원이 도서관을 소개하려 한다. 소개자는 도서관 운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실제 도서관 실무자는 무척 당황스러워한다. 도서관 실무자가 분명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

에 대한 소개 혹은 도서관의 운영 관련 설명을 그 자리에서 의뢰받지 못한다. 안내자의 설명은 그저 아주 간략한 다국어의 원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는 정도의 말만 할 뿐이다. 그럴 것이 운영주체자의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피상적이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간의 점유자와 실질적 운영 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지자체 행정 관료들은 외부인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운영 관련 정보의 양이나 질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달이다. 공간의 실제 운영 관리 기관과 그 성격, 운영 실태의 정보보다, 공간의 점유자는 안산시 지자체라는 것과 이 공간의 운영은 지자체가 이주민을 위해 펼치는 복지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일 중 하나임을 외부 방문자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공간의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순간, 실무자인 전문사서의 위치는 유명무실해지고, 공간을 도서관이라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실질적 운영자의 노고가 한순간에 이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관의 실적으로 둔갑되어 도서관은 그 실적을 외부에 과시하거나 전시하는 장소로 만들어진다.

2) 이주민 지원의 복지기관 vs. ‘도서관’이라는 전문기관

실제로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점유자는 지자체 안산시이다. 두 공간은 안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교육·문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이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관리 및 책임은 안산시의 중앙도서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두 공간은 ‘도서관’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전문성이 발휘된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주민’ 혹은 ‘다문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부각될 때,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은 갑자기 ‘복지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은 사장된다. 이는 외부 행정 공무원이 도서관에 방문하여 실무자와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잘 나타난다. 실무자가 회의 때 전달해 준 경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A: 여기 다문화인들 많아요?

B: 네.

A: 다문화 책도 많아요?

B: 네.

A: 그럼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이 운영 책임을 맡는 것이 맞겠네.

B: ...

C: 외국 원서는 구입하면 되고, 지키는 사람만 있으면 되네.

-2017.5.13. 다문화도서관에서

공무원의 사고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타 지역 방문 공무원인 A와 C의 사고 틀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논리가 존재한다. 첫째, 다문화도서관의 운영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에 기반하여 이주민의 복지와 그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다. 현재 두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 책임부처는 안산 중앙도서관으로서 전반적인 도서관의 전문성을 보장 받고 있는데, A는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다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주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이 공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은 책을 비치하고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만 있으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에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갖는 고유하

고 특별한 전문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사서 혹은 관장의 자질과 역할, 장서 구입 방법과 절차, 도서관 이용안내 및 기본 정보 공유 방식, 도서관의 기본서비스 성격과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 도서관이라는 사회 시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이 무시된다. 더욱이 이들은 이주민의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다.

이주민 개인의 정체성이 ‘다문화인’으로 낙인되어 ‘지원’과 ‘복지’의 ‘수혜자’ 혹은 ‘특별 관리 대상자’로 규정되는 것처럼, 개인이 아닌 공간을 규정하는 데도 이와 똑같은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도서관이라는 용어 앞에 ‘다문화’라는 명칭이 붙여지면, ‘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이라는 혜택 수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문화인’의 지원과 복지에 힘써야 하는 하나의 ‘복지지원시설’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기관이 갖는 고유한 전문성이 무시되면서, 도서관의 전문사서 유무나 그의 전문성이 갖는 가치는 그리 중요치 않게 된다.

복지시설이 아닌 도서관이라는 전문기관임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취하는 대응전략은 다문화 도서관의 전문성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운영 실태와 현황, 사례의 발표나 강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수상한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의 제도나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 같은 공적 자리에 이용자인 이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이주민들은 이용자로서뿐 아니라 동아리를 조직하여 통번역자, 국외 원서 수서 도우미, 세계명예사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복지수혜자가 아님을 직간접적으로 알린다. 도서관 실무자는 이주민들이 지역주민이자,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실천에 힘을 쏟는다.

3) 도서관의 전문성: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이주민의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도서관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이 대치되면서 도서관의 정체성은 이 두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되는데, 그럼 과연 다문화 공간으로서 갖는 도서관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다문화 공간’으로 갖는 전문성을 ‘다문화도서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논의해 왔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2008년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다문화사회: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에서 제시된 ‘다문화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은 기존의 도서관서비스와 구별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이어야 하며, 이주민만이 아닌, 나이, 성별, 신체조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일컫는다(이미정·이미정, 2013: 7; 김윤영·정은주, 2016: 562 재인용).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의 전문성인 ‘다문화도서관서비스’의 의미가 실제로 한국의 현장에서는 축소된다는 데 있다. 미국의 다문화서비스를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한 노지현(2012: 13~14)은 인종과 민족뿐 아니라 언어, 연령, 교육수준, 신체장애, 경제적 수준, 체류기간 등을 세분화하여 실행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다문화서비스를 인종과 민족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이주민에 한정된 서비스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를 도서관이라는 전문기관이 갖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원 프로그램 실행만으로 국한시켜 이해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사회의 작은도서관을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로 여기는 좁은 시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문화도서관 운영책임자로서 몇 년간의 경험을 인정받은 연구자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주제의 전문사서 교육프로그램 내 외부 초

청 강연자로 섭외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연수 프로그램 실무자는 구체적인 강연내용으로서 이주민을 위해 실행한 프로그램 사례설명에 초점을 맞추어주기를 요구했다. 강연하는 내내 연수 참석자인 현장의 전문사서 대부분의 관심사도 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수집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은 “다문화 관련 도서관 지원 예산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실행했던 프로그램 사례를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주민들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다. 실제로 이주민을 대하는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및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이용 공유방법, 외국장서 구입 및 비치,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등 총체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성을 다문화도서관서비스로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었다.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혹은 전문가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 적이 있다.

“다문화도서관서비스는 단순히 프로그램 비 지원금을 받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문화도서관서비스는 시작됩니다.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상 두 작은도서관은 확고한 지원과 복지라는 틀 속에 갇힌 이주민들‘만’의 공간이라는 명분하에 ‘전문도서관’보다는 ‘복지시설’로 규정되고,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도서관의 전문성은 이주민들을 위한 시혜적인 특별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한정지어 해석되어 공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결론

도서관은 사적과 공적 영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원곡동의 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은 공간의 이용 규범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서관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도서관 운영에 주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다문화도서관으로서의 고유한 전문성을 발전시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나 외부 행정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이주민들을 공간의 주인이 아닌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인식하고, 도서관을 복지 행정의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복지시설로 간주해 버린다. 그래서 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갖는 전문성과 이주민 대상이라는 특수성의 두 가지 혼재된 특성 속에서 전문기관과 복지기관 두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 주요기관이 갖는 전문성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의 이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때 더 풍부해지며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두 작은도서관은 지역거주민으로서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간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의 시선은 확고한 국가복지정책의 틀 속에 이주민들을 몰아넣고 그 특별 수혜자로서의 소수성을 강조하며 공간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킨다. 이주민과 지원, 복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이지만 확고한 사고의 틀과 이주민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제공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두 작은도서관은 지역거주민 중 내국인에게는 이용하기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대다수 거주민이 이주민이라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문화’라는 용어가 도서관 이름에 명시되어 있어 내국인들이 심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것

이 이유이다. 내국인 역차별을 조성하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의 사회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 실무자들의 과제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문성은 기본적인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국적 이주민들을 대응하는 서비스와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적 서비스의 경험이 축적되어 체계화된 것이어야 하며, 그때야 비로소 다문화공간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는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9년 9월 2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1월 8일

계재확정일: 2019년 11월 25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12월 2일

❖ Abstract

Making identity of multicultural space and discursive discourse:
the case of two small public libraries, Damunhwa and Modoo
in Wondok-dong, Danwan-gu, Kyounggi-do, South Korea.

Kim, Yoon Young

This examines the ways in which diverse people construct the identity of two small public libraries located in Wongok-dong, where the 70% residents are consisted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bribes and refugees and so other immigrants. Immigrants as the users of libraries make these libraries as their 'own' spaces, where they can promote their capacities to make successful lives in South Korea. However local administrators construct these libraries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as the tourism attractions to boast about the successful welfare service for supporting immigrants. They consider these libraries as 'welfare centers' for supporting only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are also considered only as organizing and practicing programs for immigrants. Ultimately this paper proposes the contradiction of multicultural phenomena in South Korea, which these libraries are easily constructed as 'welfare support center,' not as the specialized social institution.

Keywords: Multicultural Space, Small public library, Wondok-dong, Immigrants,
Library Service

참고문헌

- 공윤경. 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 《한국민족문화》, 48, 183~214쪽.
- 구분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9(2), 5~51쪽.
- 김영미·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쪽.
-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2쪽.
- 김예겸. 2005. 「농촌개발과 실천인류학」. 《비교문화연구》, 11(1), 225~262쪽.
- 김운영·정은주. 2016.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사례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559~578쪽.
-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1-23쪽.
- 박배균. 2009. 「초국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쪽.
- 박세훈·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쪽.
- 박정숙. 2013.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디지털도서관》, 여름호(통권 70), 31~46쪽.
- 안산시의외국인주민지원본부. 2019. 『열린 문화 다양성, 안산』. 안산: 안산시의외국인주민지원본부 통계자료.
- 양수연·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쪽.
- 오경석·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쪽.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쪽.
- 이미정·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95~321쪽.
- 이상봉. 2011.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글로벌화와 장소성의 변용」. 《한국민족문화》, 41, 231~261쪽.
- 이용숙. 2005. 「연구목적에 따른 실행인류학 연구설계」. 《한국문화인류학》, 38(1),

225~262쪽.

- 정병호. 2017. 「기억과 추모의 공공인류학: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발굴과 귀환」. 《한국문화인류학》, 50(1), 3~46쪽.
- 정병호·송도영 외. 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 서울: 현암사.
- 정은주. 2018. 「나는 우리 도서관의 주인공입니다」. 《학교도서관저널》, 80(01+02), 102~107쪽.
-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45~269쪽.
- 조용완·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쪽.
- 조용완·이은주. 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서울: 경기사이버중앙도서관.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쪽.
- 행정안전부. 2018. 『외국인주민 수 186만 명, 총인구 대비 3.6%—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17.11.1 기준 조사결과 발표). 서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Aabø, S. and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 pp. 138~149.
<http://dx.doi.org/10.1016/j.lisr.2011.06.002>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 Jessop, B., Brenner, N. &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 389~401.
- Lefebvre, H. 1990.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 Relph, E. 1985. "Geographical Experiences and Being-in-the-world: The Phenomenological Origins of Geography." in D. Seamon and R. Mugerauer eds. *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Towards a Phenomenology of Person and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5~31.
-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in P. R.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London: Arnold.